

'스타 아닌 스토리가 뜬다' 안방극장 판도가 바뀐다



'스타에서 스토리' 드라마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출연자의 인지도가 곧 시청률로 연결됐던 안방극장이 웰메이드 스토리 중심으로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현재 시청률 상위권을 차지한 드라마 '스카이 캐슬' '왕이 된 남자' '왜그래 풍상씨'가 보여주는 예다. JTBC '스카이 캐슬'은 1%의 미미한 시청률로 시작해 역대급 기록을

남기고 있다. '스카이 캐슬'이 1회 충격적인 영상과 스토리로 몰아친 후, 단 한 회도 긴장감을 놓치지 않았고 심지어 마지막회까지 반전 복선의 뒷을 놓은 점은 매우 놀라운

웰메이드 스토리 중심으로 분위기 흐르고 있어

부분이다. 마지막 한 회를 앞둔 시청자들에게 체널고정은 필연이다. 게다가 젊은층을 사로잡는 스타는 없지만 탄탄한 연기력으로 정면 승부하는 중견 배우들의 활약이 연일 호평이다. tvN '왕이 된 남자'도 지상파 동시간대 드라마인 '나쁜 형사'와 '조물호'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미 영화 '봉헤'로 검증된 콘텐츠이기도 하지만 드라마로 넘어오면서 더욱 다채해진 인물의 서사가 돋보인다. 폭군 이현(여진구)이 궁으로 되돌아오면서 극은 클라이막스로 향하고 있다. KBS2 '왜그래 풍상씨'는 문영남 작가의 '고구마'와 '사이더'를 오가는 '시그니처' 스토리가 여전히 안방극장의 주인공 중년층을 사로잡고

있음을 입증했다. 반면 톱스타들의 귀환으로 드라마 방송 전부터 화제가 됐던 드라마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으로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했다. 송혜교·박보검의 부싱반으로 호뭇함과 즐거움을 자아냈던 tvN '남자친구'는 첫 회와 마지막 시청률에 큰 변화가 없이 평이하게 유지됐다. 드라마 평론가 은구슬은 "남자친구는 비주얼 여백의 완벽한 한계였다. '예쁜 드라마'라고 봐주기에 도 스토리가 진부했다. 1회부터 남발하는 여지스런 우연적 구성은 공감되지 않았다"며 "당대 톱스타를 기용한 '태양의 후예'와 비교해도 확연한 차이를 엿볼 수 있다. '태양의 후예'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특공대와 의사의 직업의식을 선두

에 두고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었고 그들의 힘겨운 멜로가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시청률이 상승했다. '남자친구'의 경우 송혜교와 박보검의 신분, 재력의 차이라는 '역신데렐라' 스토리는 이제 고루한 소재가 됐다"고 평했다. 현빈과 박신혜의 특급 만남을 이뤘던 tvN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은 신선한 소재로 극 초반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 잡았지만 결국 '용두사미 스토리'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후속드라마인 '로맨스는 별책부록'은 이나영을 9년 만에 안방극장으로 이끈 작품으로 앞으로 지켜볼 부분이 많았으나 2회가 방송된 현재 '경단만찬' 캐릭터 설정이 극단적이며 평면적이란 시청자들의 평이 이어지고 있다. 드라마는 저녁 킬타임용을 벗어나 대중에게 이슈를 던지며 진화하고 있다. 스토리의 힘이 부각되는 이유다.

방탄소년단, 한국대중음악상 5개 부문 후보

제16회 한국대중음악상 후보가 공개됐다. 방탄소년단은 5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돼 다시 한번 저력을 입증했다.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6회 한국대중음악상 후보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선정위원장 김창남, 선정위원 김광현, 선정위원 박희아, 선정위원 이대화가 참석했다.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은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의 음악상으로, 판매량이 아닌 음악의 예술적 가치를 선정 기

준으로 삼아 주류, 비주류의 경계 없이 한국대중음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번 시상식은 종합분야 장르분야, 특별분야 등 총 3개 분야 24개 부문에서 시상한다. 방탄소년단은 올해의 음반, 올해의 노래, 올해의 음악인, 최우수 팝 음반, 최우수 팝 노래 등 5개 부문에 후보로 올랐다. 특히 방탄소년단이 제16회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음악인 상을 수상한다면 2년 연속 수상으로 그 의미가 깊다.

선정위원 박희아는 방탄소년단의 노미네이트에 대해 "방탄소년단은 유수 아티스트와 협업하며 뛰어난 음악적 역량을 펼쳤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의 노래 부문에는 'Fake Love', 'IDOL' 등 두 곡이 후보로 오르며, 화제성과 작품성 면에서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의 노래 부문에는 마미손의 '소년점프'도 노미네이트됐다. 선정위원 이대화는 "마미손은 '쇼미더머니'에서 첫 선을 보인 후로 큰 관심



을 받은 점과 개성 있는 음악적 역량을 펼친 점에서 후보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올해의 음악인 부문에는 방탄소년단을 비롯 김사월, 세이수미, 이선지, 장필순이 노미네이트됐다. 눈에 띄는 뮤지션은 재즈 아티스트 이선지다. 선정위원 박희아는 이선지의 후보 선정 이유에 대해 "재즈음악인이 올해의 음악인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것은 이례적"이라며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앨범을 발매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한국대중음악상 지향점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선정위원 이대화는 "한국대중음악상은 아이돌 노래에 편견을 가지지 않으며 구분을 두지 않는다. K-POP 대세가 아이돌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후보 논의에서도 아이돌 비중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선정위원 박희아 역시 "아이돌 곡을 얼마나 후보로 올릴 것인가라는 것 자체가 한국대중음악상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정위원장 김창남은 "방탄소년단의 음악적 성과와 아티스트적 요소로 미루어 봤을 때 여러 부문에 노미네이트되기에 충분하다"며 "한국대중음악상은 끊임없이 고민하는 시상식이다. 아이돌 노래에 편견을 두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제16회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은 오는 2월 26일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에서 개최된다.



'안녕하세요', 2주 연속 시청률 6%...공감·감동 선사



깊은 감동과 공감을 선사한 '안녕하세요' 시청률이 2주 연속 6%를 돌파했다. 지난 28일 방송된 KBS2 예능프로그램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요' 398회 시청률이 6.1%(닐슨코리아 전국기준)로 2주 연속 6%를 돌파하며 향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고 있다. 지난 방송에서는 술 마시고, 담

배를 피우는 일탈 행동에 대해 아버지에게 술과 담배 심부름까지 시키는 18살 아들 격정에 '안녕하세요'에 도움을 요청한 아버지의 '야, 이 자식아!'라는 사연이 소개되었다. 고민주인공의 아들은 얼마전 길에서 술을 마시다 경찰서까지 끌려 갔고, 이에 고민주인공은 이웃들이 입을 피해에 대한 걱정과 아들에 대한 염려로 "차라리 집에서 몰래 먹든가"라고 말했다고 했다. 실망했지만 이후 아들은 단정한 듯 아버지에게 전화해 술을 사오라고 했다. 종2때까지 공부도 잘하고 착실하던 아들은 종3 무렵부터 술과 담배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술을 먹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가 하면 마트에서 술을 훔치다 걸린 적도 있는 아들을 보며 고민주인공은 차라리 자신의 눈 앞에서 하는 게 낫다 싶어 아들에게 집에서 마시라고 했지만, 퇴근하면서 아들의

술과 담배를 사기는 자신의 모습에 눈물이 난다고 했다. 이어 등장한 아들은 아버지의 고민은 이해가 되지만 아버지가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술을 안 마시면 안되는 거예요?"라는 김태균의 물음에는 "아예 안 마시지는 못할 것 같아요"라 했고, 출연진들이 아들의 건강에 대해 걱정하자 아지는 아무 이상 없다고 답해 듣는 이들을 당황스럽게 했다. 술과 담배 이외에도 어색하고 멀기만 한 부자관계도 문제였다. 아들은 종 3때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걸려 아버지에게 심하게 맞았고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아 아버지와의 대화를 회피했다고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날 이후 아들에게 손을 댄 적이 없었으며 아들에게 다가서기 위해 이런저런 노력을 했음에도 아들은 아버지의 대화 요청에 "왜요", "싫어요"라는 등 공격적으로 대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아들은 아버지가 언제든 때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 것이라고 했다.

아들의 말에 이영자는 비겁하며 잘못된 행동 때문에 아버지가 두 세번 혼낸 것을 빌미로 잡고 계속 핑계를 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동엽은 기본적인 규칙을 정해 그것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 변화를 시도해 보는 것 어떤 지를 물었고 아들은 흔쾌히 받아들였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술과 담배를 절단으로 끊어달라고 부탁했고 한달에 네 다섯번이라도 마주않아 대화를 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아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며, "지금까지 너무 속 썩어서 죄송해요. 혼자서 힘들었는데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고맙고 사랑해요"라 말했다. 아들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이 이 자리에서 처음 들은 아버지는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후 10년 동안 아이들이 얼마 없는 빈자리를 느끼거나 기죽지 않게 하기 위해 이를 악물고 살아온 아버지의 절절한 부성은 출연진들의 눈시울을 적셨고 시청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오늘의 순세 2019년 1월 30일 수요일 (음력 12월 25일)



- ▶**쥐** 동업하는 사람은 서로 금전 문제로 언쟁 있을 듯. 상대가 마음 상하지 않도록 의논하면서 풀어나가야 손해 적겠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경쟁자와 방해자가 많으나, 2, 4, 9월생은 신변 조심할 것.
- ▶**돼지** 이야기하고 싶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주지 않으니 답답하구나. 진심을 몰라주니 정신적인 상처로 인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겠다. 사업과 직장도 순리대로 풀리지 않으니 걱정분. 쥐, 토끼, 말띠와 함께함이 좋을 듯.
- ▶**호랑이** 투자는 해보고 득이 없다. 이렇 수도 저렇 수도 없으니 마음고생이 많구나. 애정은 서두르는 것보다 자신의 마음을 진실하게 보일 때 좋은 소식 올 듯. 9, 11, 12월생 직장인은 하급자에게 특별한 신경 쓸 것. 따스함을 보일 때 칭찬이 들린다.
- ▶**사슴** 화를 참는 것만큼 즐거움이 크다. 1, 5, 8월생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동로 간에도 당신의 너그러운 내면을 보여준다면 좋은 일 있겠다. 남편과 자녀로 인해 마음고생 많겠지만 지혜롭게 대처하라. 7, 8, 9월생은 자신감이 필요할 때.



- ▶**물고기** 동기간에 우애가 없으니 불화 잦겠다. 서로 자주 왕래하면서 화목 찾는 것이 우애를 쌓는 길이다. 때는 항상 당신을 위해 기다리지 않는다. 1, 3, 5월생은 신념을 굽히지 말고 인내로 전진한다면 성사될 운이다.
- ▶**닭** 매사가 힘에 겨워 부담스럽지만 바, 오, 7성씨에게 도움을 청하면 손조롭게 풀릴 듯. 주부는 자녀 일로 신경 쓸 일 생김. 각별히 살펴봐야겠다. 2, 4, 8, 12월생은 화가 난다 고 언행 남발하지 마라. 훗날 큰 화근이 될 수 있다.
- ▶**말**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줘야 모든 일이 순리대로 풀린다. 무언으로 대하는 것보다 대화로 문제 풀어라. 진실한 대화가 당신을 행복으로 인도할 때다. 1, 바, 오 성씨는 허욕을 부린다면 함정에 빠질 우려 있으니 탐욕은 금물.
- ▶**소** 자신을 확실히 알고 처신하라. 남을 기만하면 자신에게 더 큰 재앙이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때. 1, 5, 11월생은 추진하는 일 너무 급히 서두르지 마라. 7, 8, 9월생은 금전으로 고심할 수 있다.



- ▶**원숭이** 주변을 정리하고 인내심을 길러야. 야만 된다는 자신감으로 개혁하라. 7, 8, 9, 11월생은 부부간의 의견 대립으로 고심할 수 있다. 3, 6, 7, 9월생은 북, 동쪽 사람에게 조언을 얻어 새 출발함이 좋을 듯. 지나친 신경은 금물.
- ▶**물소** 자신을 낮추면 놀아지고, 모두가 저절로 따라 올 것이다. 좋은 기본으로 가족과 함께 한다면 매사가 순조롭겠다. 사업가는 지나친 확장을 삼가고 현재 위치에서 내실 기할 때 의외로 큰 소득이 있을 듯. 2, 7, 9월생은 유희의 손길 조심.
- ▶**개**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침착하게 처신하라. 자녀들에게 시간을 두고 관심 갖는 것도 탈선을 막는 길.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 의기소침하지 마라. 점차적으로 운이 들어오니 걱정 사라질 듯. 2, 8, 10월생은 구설 조심.
- ▶**돼지**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도 마음을 다스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야 건강에 해가 없겠다. 7, 8, 9월생은 기회를 포착해서 운을 잡아라. 자신의 인생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 메뚜기도 한철이라 했다. 11, 12월생은 적색이 길조.